

## 차이나타운 조성 서울시 “긍정적”...물밑작업 활발

(문화일보 1999.10.04)

차이나타운 조성 서울시 “긍정적”...물밑작업 활발

서울 차이나 타운 조성을 위한 물밑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성동구 성수동 뚝섬 일대 8 만여평에 차이나 타운을 건설하겠다는 서울 차이나타운 추진위원회의 제의에 대해 입지가 적당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추진위는 차이나 타운 조성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도 뚝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차이나 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세를 나타내고 있어 차이나타운 조성지가 곧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차이나타운 조성에 대한 추진위의 입장은 확고하다. 추진위 양필승(梁必承.42·건국대 교수)공동위원장은 “뚝섬이 차이나 타운 조성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불허할 경우에 대비해 후보지 5~6 곳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월드컵이 열리는 2002 년전에 차이나 타운을 반드시 개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위의 입장이 확고한 것은 서울 차이나 타운이 화교뿐 아니라 국익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추진위는 차이나 타운이 유동자산이 2 조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화교자본을 끌어들이는 창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위는 뚝섬 차이나 타운 건설에 드는 1 조 3 천억원의 사업비 중 80%를

해외 화교자본으로 충당할 계획이다.또 차이나 타운이 조성되면 연간 1 백만명 가량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국내의 관광객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일본 요코하마 차이나 타운의 경우 도쿄 디즈닐랜드의 연간 관광객 1 천 6 백만명보다 많은 1 천 8 백만명이 찾고 있다.

특히 서울 차이나 타운은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평화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중국·대만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북한이 중국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는 곳을 공격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양위원장은 “차이나 타운 조성은 화교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한·중 양민족이 동반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교자본이 차이나 타운을 교두보로 삼아 진출할 경우 화교들이 국내 경제권을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추진위측은 괜한 걱정엔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미국과 일본 자본의 유입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화교 자본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화교 자본 유입은 한국 경제의 다각화와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서울 차이나 타운을 ‘현대(Modern)’와 ‘깨끗(Clean)’의 개념에 바탕을 둔 환경친화적인 국제도시로 건설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할 방침이다.

건국대 이상규(李尙揆 .41)박사는 “서울 차이나 타운 조성은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관광자원 개발이라는 차원에서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 ”이라며 “유럽의 2002 년 월드컵 관광객들이 서울을 관광코스에 제외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적인 관광자원인 차이나 타운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과 대만·싱가포르 등 해외 화교들로부터 서울 차이나 타운에 대한 투자와 지지를 약속받은 추진위는 이달 중순 호주 멜버른에서 열리는 화교기업가들의 모임인 세계화상대회에 참석해 서울 차이나 타운 조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유병권기자>

기사 게재 일자 1999-10-0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1999100427000301>